

## 다산포럼

송재소



## [ 오피니언 ]

중국 감숙성에 주천(酒泉)이란 곳이 있다. 그 고을의 물맛이 술과 같다고 하여 한 나라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문자 그대로 '술이 솟아나는 우물'의 고장이니 예로부터 전하의 술꾼들이 통경해 미지않던 곳이다. 두보의 시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는 당시 8명의 주선(酒仙)을 읊은 작품이다.

그 중에 '여양은 술 세 말 마시고야 조정에 드는데(汝陽三始朝天) / 가는 길에 누룩 수레 만나면 침을 흘리고(道逢驥車口流涎) / 주천태수 되지 못함을 한탄한다네(恨不移封向酒泉)'라는 구절이 있어, 여양왕 이진(李璉)이 주천의 태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이백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 제 2수에도 '하늘에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야 (天若不愛酒) / 하늘엔 주성이 없었으면 (星不愛天) / 대지가 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酒星不在天) / 대지가 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 않았다면야(地若不愛酒) / 땅엔 응당

주천이 없었을 것이다(地應無酒泉)하여 하늘과 땅도 술을 사랑했으니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이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은

이 주천에 최근 '우주경제특구'란 명칭이 붙여졌다. '주천'과 '우주경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2003년 유인 우주선 신주(神舟) 5호와 2005년의 신주 6호에 이어 올해 9월 신주 7호가 주천 근처의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우주경제특구로 발돋움한 것이다.

그러나 '주천'과 '우주경제'를 약간은 어울리게 만든 일이 있었다. 2007년에 달 탐사위성인 항아(嫦娥) 1호가 주천에서

리게 되었다. 이백과 주천과 술과 달을 떠올리면, 주천에서 달 탐사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그 리 어색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달 탐사위성의 이름을 '항아'로 명명해서 그 어색함을 좀 더 풀어준다.

우주선 발사기지에 우주경제특구라는 이름을 붙인 중국인의 상술도 놀랍지만 달 탐사위성을 '항아(嫦娥)'로 명명한 중국인의 예지가 더욱 놀랍다. 유인우주선을 '신의 배'라는 뜻의 '신주(神舟)'라 이름하고 달 탐사위성을 '항아(嫦娥)'라는 이름을 붙이며, 신주 7호 발사 후 중국 CCTV가 '신주운천(神舟問天)'(신의 배, 하늘에 묻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한 것은 한자가 가진 독특한 특성에 힘입은 바 크다는 생각도 해본다.

"봄 가을 흰 토끼는 불사약을 쟁고 있고 / 홀로 사는 항아는 누구와 이웃할까"(把酒問月)라고 노래했던 이백이 주천의 항아 1호 발사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감회가 과연 어떠했을까?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우주경제 특구 주천(酒泉)

일이라 했다. 아마 이백은 주천에 살면서 좋아하는 술을 실컷 마시며 달과 더불어 살고 싶었을 것이다.

실로 이백은 술과 달의 시인이었다. 그는 인간세상에서 느낀 환멸과 좌절을 술로 달래었고 주악한 현실 너머에 있는 달을 너부나 사랑했다. 그래서 이백의 시에 술이 등장하면 으레 달이 따라 나온다. 말하자면 이백과 술과 달은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되었기 때문이다. '항아'는 달의 별칭이다.

전설에 의하면 항아의 남편 예가 곤륜산의 서왕모(西王母)로부터 불사약을 얻어왔는데, 둘이 함께 먹어야 할 불사약을 항아가 혼자 물려 훔쳐 먹었다. 몸이 가벼워진 항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죄책감 때문에 달 속에 숨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 항아는 달에서 흘로 사는 여인이 되었고 수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달은 항아로 불

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은 다행이다. 조 회장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강조했다. 내년 전경련 업무계획에 대·중·소기업 체용박람회와 지방투자 박람회 개최 등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반영할 것도 다짐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경련 회장이 지방 중소기업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지난 1990년대 초 고(故) 최종현 회장이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을 방문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의 기대가 높아졌다.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며 경영을 악화하고 있다.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데다 대기업 납품 물량 축소와 단기 하락으로 많은 기업이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지역 기업인들의 호소는 절실히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및 장학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예

## 기고

문병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엿제 같았는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며 폭설이 내렸다. 밖의 날씨는 쌀쌀하지만 사무실에는 국화 향내가 그득하다.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청장님, 전화로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우선 어떤 분이 전화했는지 궁금했고, 또 그 사연을 듣고 싶었다. 전화를 주신 분은 6·25전쟁 때 남편을 잃은 전몰군경 미망인이었다. 올해 나아여 든을 넘기신 어르신은 그간 온갖 고통을 다 겪었다고 한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취업이 돼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둬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렵다.

## 희망을 드립니다

고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훈청에서 보훈도우미를 파견해 줘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보훈도우미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집안청소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다. 미망력 보훈청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 도저히 갈 수는 없고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한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거푸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연세가 지긋한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다. 몸이 많이 불편한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데 몸은 떨고 있고 거동도 힘들어 보였다. 어르신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보훈대상자였다. 고령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아픔을 겪고 있었다. 어르신께서도 아들이 있어 국가보훈의 혜택을 받아온 행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찾았을지도 전화 한 통도 없다고 분개하시며, 아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아들 원망과 함께 보훈

화 주세가 급속히 심化되고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청에서는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 등 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 고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지역에는 6명의 보훈복지사와 111명의 보훈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력이 미약한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세탁, 취사, 밀반찬 제공 등 가사 지원과 목욕, 건강체크 등 간병 수발, 산책, 심부름, 말벗 등의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분을 다하며 봉사하고 있는 보훈도우미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가족들이 모두 함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한 단계 성숙한 세계국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광주지방보훈청장〉

## 기고

손재홍



의원 발의 조례 중 필자가 발의한 '청소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국 지방 의회 조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조례로 기록이 남게 됐다.

필자가 청소년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부응하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이유가 그 첫 번째다. 그러나 광주 동구지역 출신인 필자에게는 현실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 청소년들이 활동무대였던 도심지역 충

## 청소년은 미래 문화예술의 원동력

장로와 금남로의 활력을 되찾아 사람들을 북적대고 결국은 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광주의 금융, 상업, 업무, 행정의 중심지였던 동구가 신도심 개발과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인구 11만 명도 지키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동구가 살 길은 사람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다.

다행히 전남도청이 떠난 자리에 국비 등 5조원을 투입하는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2023년 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부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민 대부분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이 문화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고

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조례'를 밟았다.

청소년 조례 제정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광주문화 특성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사업', '교원·학생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 상수도 요금, 시내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상수도와 도시가스 요금, 택시 요금 등 일부 공공 서비스 요금을 5~10%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기름값 폭등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요인이 발생했으나 인상을 억제해온 것은 사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바람

이후에는 재고려해야 한다.

## 無等鼓

반발하며 김 최고위원을 당사에 주저앉히고 영장 불승 투쟁을 했다. 그 사이 여야 대표의 비밀회동 문제를 불거졌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치명상까지 입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달 30일 1천여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켜준 일도 도미에 오른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책임임을

문자도 않고, 덜컥 국회 통과를 합의해줬다는 것이다.

원내대표팀은 "목소리만 있고 결과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강민수·최시종·여정수씨 등을 '국적 찍어' 사퇴시키겠다고 한 게 4개월이 넘었다. 쌀 직불금, 강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밝은 등도 일

만 벌여놓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적 열세를 듣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투쟁의 강온 조절, 국민 협연 해결 등 건전 야당으로서 거듭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웬만한 '식물'을

먹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sim@kwangju.co.kr

## 의료기기 오작동 우려, 치료 중엔 휴대폰 사용 자제를

## "도로교통 범칙금 안내면 그만" 인식 팽배

직장 동료나 친구, 친지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자동차에 관한 화제로 넘어갈 때가 많다. 대화를 들어보면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범죄 범칙금은 미납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예외로 문제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형식적인 독촉장 발부나 차량압류 조치를 위한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부과받은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량 명의이전이 되지 않도록 범칙금 강화 방안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바로 옆 다른 침대에서 끊어지 않고 휴대폰 울리는 소리와 통화 내용이 들렸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도의 가산금이 불지 않는다. 폐차할 경우 차체 납부와 과태료를 모두 물어야 하지만 일부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차량을 거리고 버리고 하위도 신고를 하는 부작용을 냈다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범죄 위반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범칙자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형식적인 독촉장 발부나 차량압류 조치를 위한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부과받은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량 명의이전이 되지 않도록 범칙금 강화 방안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선경·광주시 북구 용봉동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치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2200-692 (F A X 227-0118)

편집국내부 2200-52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6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1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63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91 (F A X 227-9500)

문화부 2200-536 (F A X 227-9500)

경영부 2200-4267 (F A X 227-9500)

경영부 2200-511 (F A X 227-9500)

경영부 2200-692 (F A X 227-9500)